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03학년도 10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2 | | | 1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u>없는</u> 것은? [1점]
① 화학공학의 학문적 성격
② 화학공학과의 연구 분야
③ 화학공학과 화학의 차이
④ 화학공학 연구의 한계점
⑤ 화학공학 전공자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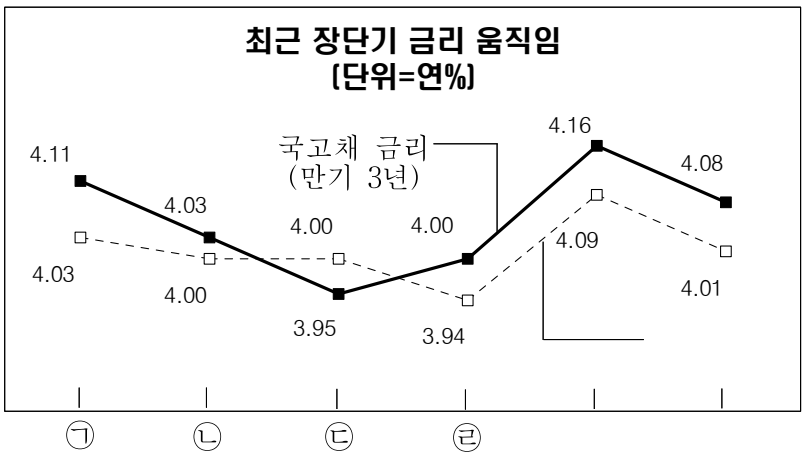
2. (물음) 화자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②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여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⑤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3. (물음) 이 대담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2점]
① 선분양 방식은 설계만 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② 선분양 방식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건설업체가 부도날 수 있다.
③ 후분양 방식은 공급 부족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④ 후분양 방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후분양 방식은 아파트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이점이 있다.

4. (물음) '여자'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책임감이 매우 강하군.
②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군.
③ 자기 체면을 많이 차리는군.
④ 사회의 윤리와 규범을 중시하는군.
⑤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군.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금융시장에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시점은?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6. (물음) 이 강연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 이에 따라 단기 금리도 낮아진다.
② 금리의 하락은 소비를 증가시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③ 금리 변동이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금리의 인상은 수요를 억제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는 경기를 예측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7. 다음 그림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글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인터넷 언어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우리말의 사용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②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건전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내용
③ 인터넷상에서 시작된 유행어들로 말미암아 갈수록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
④ 인터넷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축약어나 은어가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언어 문화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내용
⑤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는 내용

8. <보기>의 글을 완결시키고자 할 때, (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보 기 〉

우리 주변에는 소일거리를 찾아 방황하는 노인들이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걸식을 하다시피 하는 노인들도 많으며, 심한 경우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이다.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서구 산업 사회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여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됨으로써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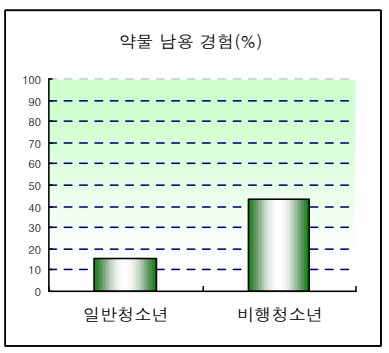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 )

①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시급하다.
② 노인 복지 제도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③ 핵가족 제도보다 확대 가족 제도를 장려하여야 한다.
④ 빈민층 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전통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9. 개요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더 접하였다. 두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2점]

제목 : 청소년의 약물 남용
Ⅰ. 서론 :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증가
Ⅱ. 본론
1. 약물 남용의 원인
- 각종 부적응 및 스트레스 상황의 해소, 만성 신체 질환 및 정신 질환 등
2. 남용 약물의 종류
-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3. 약물 남용의 결과
-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Ⅲ. 결론 : 가정·학교·정부기관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함



[1]

18세 청소년이 나이트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오토바이로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가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숨졌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또한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3명의 청소년들도 약물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엑스터시 복용으로 숨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보

[자료2]

① Ⅰ에, 비행 청소년의 약물 남용 경험이 일반 청소년의 경우보다 3배 가량 많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② Ⅰ에, 약물 남용을 경험한 학생보다는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제시한다.
③ Ⅱ-1에, 약물을 남용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Ⅱ-2에, 청소년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의 부작용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첨가한다.
⑤ Ⅱ-3에, 비행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경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한다.

10. 제시된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든 것 중, 잘못된 것은? [2점]

① 바라다 :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하기를 바란다.
바래다 : 오래 입은 옷의 색이 바랬다.
② 다르다 : 유치원과 유아원은 다르다.
틀리다 : 그는 맞았고, 나는 틀렸다.
③ 부딪히다 : 철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딪혔다.
부딪치다 : 차들이 서로 '꽝'하고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
④ 늘이다 : 우리 학교는 학생 수를 늘이기로 했다.
늘리다 : 고무줄을 길게 늘려 사용하였다.
⑤ 잊다 : 어제 네가 한 말을 잊어버렸다.
잃다 : 내 동생은 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11. <보기>의 시를 완성하려고 한다. <조건>을 충족시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보 기 〉

꼬부라진 마을길이 정겹게 맞아주고
늙으신 우리 어매 어서 오라 손짓하는
그리워라, 잊지 못할 마음의 고향이여.

_____

_____

<조건>
◦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할 것
◦ 계절 감각이 나타나도록 할 것
◦ 향토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것

① 잔잔히 밀려오는 흰 파도 따라
갈매기 한가롭게 나래 펴는 그 곳이여.
②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푸른 보리밭엔 종다리 우짖는 그 곳이여.
③ 천사의 노래처럼
흰 눈송이 하늘 가득 퍼져 가는 그 곳이여.
④ 달도 별도 가까이
포근한 미소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는 그 곳이여.
⑤ 연록의 새순이 움트도록
따사로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곳이여.

12. 다음은 (가)를 (나)로 고쳐 쓰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검토 결과'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2점]

(가) 처음 쓴 글	형식면에서도 다른 문학의 갈래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작품 제목 다음에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무대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희곡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동적(動的) 문학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희곡을 다른 문학 갈래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차이는 희곡에서는 등장 인물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지은이 혼자서 이야기하는 시나, 지은이와 등장 인물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소설과는 다른 점이다.

↓

㉠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빠뜨렸다.
㉡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중복되었다.
㉢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되지 않았다.
㉣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산만하다.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앓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씰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나)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ㄹ 닐니리.

- 한하운, 보리피리 -

(다) 눈을 감으면
어린 때 선생님이 걸어 오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상 추억한다.
-옛날에 옛날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윈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 오후.

- 이한직, 낙타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② 매개체를 통해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③ 심리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⑤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14. (가)를 <보기>처럼 시나리오로 각색해 보았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보 기 〉

S#1 어느 허름한 집, 마당.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운 의원이 서 있다.)
의원 : 안에 있는가?

S#2 방 안.
(청년이 맥없이 누워 있다.)
청년 : (ⓐ힘없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의원 :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의원일세.
청년 : 예, 와 주셨군요.
의원 :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청년 곁으로 다가앉는다.) 그래, 어디가 아픈가?
청년 : 온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의원 : 어디 팔을 내밀어 보게.
청년 : 예. (여윈 팔을 힘없이 내민다.)
의원 : (ⓒ눈을 지그시 감고 맥을 짚으며) 자네 고향은 어딘가?
청년 : 평안도 정주(定州)라는 곳입니다.
의원 :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면, ○○○씨를 아는가?
청년 : 제가 아버님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의원 : 그래, 나와는 막역(莫逆)한 사이라네.
청년 : …….. (ⓔ쓸쓸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며, 고향과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 O. L.-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가)의 표현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①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② 의원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대화의 장면을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④ 화자의 체험을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정황만 제시하고 있다.

16.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애상적인 정조를 심화시킨다.
② 연과 연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③ 시 전체가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④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⑤ 특정 음운을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는다.

17. (다)를 읽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윤희 :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닐까?
② 준성 : 물론이지, 화자도 낙타를 보고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잖아.
③ 윤희 : 그런데, 화자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도 쓸쓸해 하는 것 같아.
④ 준성 : 회초리를 드신 선생님은 왠지 좀 엄하셨을 것 같기도 하지?
⑤ 윤희 : 하지만, 지금쯤 그 선생님도 낙타처럼 늙으셨을 거니까, 화자는 마음이 아플 거야.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체나 액체, 기체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알갱이 입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진 못했다. 최근 들어 알갱이가 고체나 액체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알갱이 역학이 물리학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퍼 박 박사는 한 줌의 모래가 만들어 내는 패턴 속에서 '스스로 짜여진 고비성'이라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바닥을 깨끗이 한 후 모래를 일정한 속도로 조금씩 쏟아 부으면, 모래들은 자신이 처음 떨어진 곳에 그대로 멈춰 조금씩 쌓이면서 산 모양의 작은 모래더미를 만든다. 시간이 흘러 모래더미가 어느 정도 경사를 이루게 되면 모래 알갱이들은 경사면을 타고 조금씩 흘러내리게 된다. 일정한 속도로 모래를 계속 부어주면 쏟아지는 모래와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이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모래더미가 일정한 각도의 더미를 이루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각도를 멈춤각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것은 멈춤각이 모래더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래의 특성에 따라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며, 모래를 아무리 더 부어도 모래더미는 스스로 일정한 각도의 모래더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모래더미의 각도가 멈춤각보다 작으면 모래가 계속 쌓이고, 멈춤각보다 크면 옆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일정한 각도의 모래더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를 고비상태라고 부른다.

시카고 대학의 하인리히 재거 교수와 그 동료들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모래더미의 경사면을 촬영한 결과, 모래더미 속의 알갱이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래를 계속 쏟아 부으면 모래더미 경사면의 얇은 위층은 마치 액체처럼 흘러내리고 안쪽은 고체처럼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래시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즉, 모래시계가 위에서 누르는 모래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이유를 재거 교수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래시계의 경우 유리면에 닿은 경사 부분의 모래는 액체처럼 미끌어져 내려가지만 위에서 누르는 모래는 고체처럼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모래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

문에 모래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모래에 '물'이 첨가되는 경우, 모래의 성질은 어떻게 바뀔까?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혼베이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수분을 조금씩 첨가할 경우, 모래더미의 멈춤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해 보았다. ㉡그들의 실험에 따르면,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이 첨가되기만 해도 모래더미의 멈춤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알갱이들은 서로 응집하게 된다. 미세한 수분이 모래 알갱이들을 서로 고정시켜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알갱이들의 운동은 모래더미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알갱이들의 운동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래 알갱이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알갱이들이 그처럼 풍부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최근 물리학 분야에서는 알갱이 역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② 퍼 박 박사는 모래더미가 만들어 내는 고비 상태를 발견하였다.
③ 재거 교수는 모래시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④ 혼베이커 교수는 모래 알갱이와 수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⑤ 알갱이 역학은 물리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19.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②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였다.
③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였다.
④ 전문가들의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절충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 윗글을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2점]

① 멈춤각의 크기는 쏟아 붓는 모래의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겠군.
② 쏟아 붓는 모래의 양이 많아지면 모래더미의 크기가 커지고 멈춤각도 비례하여 커지겠군.
③ 모래더미의 각도가 멈춤각보다 작을 때, 모래더미에 쏟아 붓는 모래는 더미 위에 쌓이겠군.
④ 모래에 수분을 첨가하면 멈춤각은 급격하게 커지고 모래 알갱이들의 응집력이 강해지겠군.
⑤ 모래더미에 쏟아 붓는 모래의 양과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래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멈춤각이 형성되겠군.

21. ㉠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정유회사가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석유 등을 분류해 내는 기계를 제작하고자 할 때
② 계곡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온 모래가 강 하구에서 모래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③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지역에서 특정 암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할 때
④ 목장에서 종이 부대에 담긴 사료를 가축의 먹이통에 일정하게 쏟아 붇는 장치를 만들고자 할 때
⑤ 방앗간에서 벼를 찧어 쌀을 만든 후, 쌀 속에 섞인 돌이나 이물질을 골라내는 기계를 만들고자 할 때

22.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그래서 모래와 시멘트가 잘 섞이는구나!"
② "그래서 모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암석으로 변하는구나!"
③ "그래서 해안 모래밭에서 높은 모래탑을 쌓을 수 있구나!"
④ "그래서 병에 모래와 물을 담아 흔들면 모래가 가라앉는구나!"
⑤ "그래서 바람이 많은 사막에 모래 언덕이 자주 만들어지는구나!"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하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쌍계사로 보내고 장날만 집에 오게 한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나타난다. 성기가 계연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화는 장차 둘을 결혼시켜 역마살을 극복하고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러나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귀에 난 사마귀를 발견한다.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던 중,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서 사실로 밝혀진다. 계연과 성기의 사랑은 좌절되고 계연은 떠나려 한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 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듸려다나 보는 드키 재줄 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듸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 "그럼 어쩔라냐? 너 졸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엿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 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驛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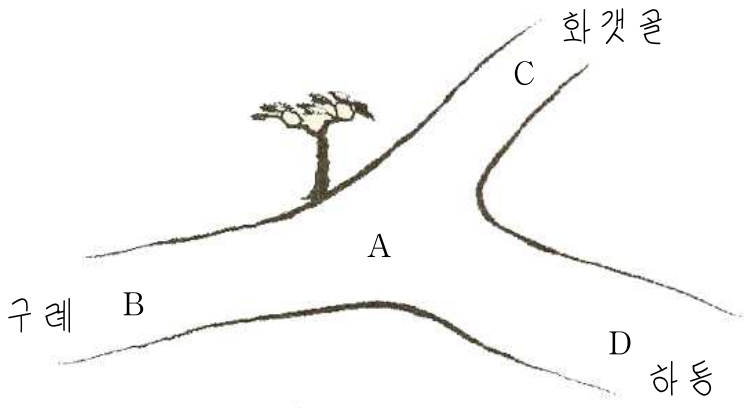
23. 윗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길'을 중심으로 작가의 창작 과정을 상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보 기 〉

▶ 제목 : 역마(驛馬)

ⓐ 다양한 '길'의 의미 중, 제목과 관련하여 '떠돎'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

▶ 공간적 배경 : 화개 장터의 '삼거리 길'



ⓑ A는 헤어짐의 장소이자, 선택의 기로가 됨

▶ 주인공의 '길' 선택에 따른 주제의 변화 양상

ⓒ 주인공이 B방향을 선택했을 경우
→ 계연과 결혼하여 정착을 시도함

ⓓ 주인공이 C방향을 선택했을 경우
→ 운명에 순응하여 새 삶을 시도함

ⓔ 주인공이 D방향을 선택했을 경우
→ 운명에 순응하면서 방랑을 지속함

① ⓐ ② ⓑ ③ ⓒ ④ ⓓ ⑤ ⓔ

24. ㉠~㉤ 중,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2점]

〈 보 기 〉

이는 갈등하던 등장 인물에게 행동을 결단하게 하여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확보하고, 운명에 대결하는 등장 인물의 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운명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5.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결국 너도 떠나려 하는구나."
②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구나."
③ "아직도 계연을 못 잊어 하는구나."
④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⑤ "그 동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26. 윗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옥화는 성기가 떠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싶었을 거야.
②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면 떠날 것을 결심한 것 같아.
③ 옥화가 성기와 계연의 관계를 밝혔을 때 성기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④ 계연의 반복된 말 속에는 성기가 자신을 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봐.
⑤ 성기가 떠나면서 한참 뒤 몸을 돌린 것은 계연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 같아.

27. <보기>를 '성기'의 편지라고 가정할 때, 윗글의 내용과 관련이 <u>없는</u> 것은? [1점]

〈 보 기 〉

어머니께 올립니다.
낙엽들의 하소연 소리가 들리는 가을입니다.
그 동안 몸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저는 어머니의 염려 덕분에 몸도 마음도 편안히 잘 있습니다.

……

ⓐ계연이 먼저 떠난다는 사실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듬해 봄날까지 저는 열병을 앓은 듯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계연이가 어머니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을 때,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셨던 어머니에게는 죄송하였지만, 고민한 끝에 저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을지 모르지만, 떠날 때의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

제 염려는 마시고 부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10월 1일
타향에서 성기 올림

① ⓐ ② ⓑ ③ ⓒ ④ ⓓ ⑤ ⓔ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를 복잡성 과학의 맥락에서 파악한 대표적 인물은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브라이언 아서(Brian W. Arthur) 교수이다. 그는 경제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복잡계로 보았다. 이것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발상의 경제관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경제는 안정과 균형을 이루며,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합리적인 소비자들에 의해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두 번째 먹은 사탕은 첫 번째 먹은 사탕보다 덜 달고, 비료를 두 배 쓴다고 해도 수확은 두 배에 미치지 못하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늘어나는 수익성은 투자량에 못 미친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되면, 사탕에 싫증이 난 사람들은 사탕을 덜 먹게 될 것이고, 농부는 비료를 적당한 양 이상은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어떤 회사나 상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는 늘 다양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첫 번째 사탕을 먹은 사람이 계속 그 사탕만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초기의 작은 차이가 대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디오 녹화 재생 방식에는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베타 방식이 VHS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VHS 방식이 비디오 시장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다. 그 이유는 VHS 방식의 비디오 상점들이 운 좋게도 시장을 약간 더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술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비디오 상점들은 모든 비디오에 대해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 쌓아 놓는 것을 싫어했고, 소비자들은 새로 구입할 비디오가 나중에 사라져 버릴까봐 걱정했다. 사람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선두 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VHS 방식과 베타 방식의 점유율 차이는 아주 작았으나, ㉢선점 효과로 인해 결국 VHS 방식이 시장을 점령하게 됐고 베타 방식은 비디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아서 교수와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환원주의'란 최소 구성단위의 성질을 이해하면 전체 시스템의 성질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모래알처럼 독립적인 개인의 경제 행위를 단순히 합하면 한 사회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서 교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두 법칙은 병존하며 상호 보완적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식량 산업이나 중화학 산업처럼 안정되고 변화가 느린 대량 생산 체제를 지배하는 반면에, 수확체증의 법칙은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거머쥐는 정보 산업에서 작동된다. 문제는 경제가 물질의 힘에서 정신의 힘으로, 자원 위주에서 지식 중심으로 서서히 바뀜에 따라 경제의 작동 원리도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28. 윗글에 드러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1점]

① 현실 경제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②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은 상품을 선호한다.
③ 특정한 상품이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할 수 없다.
④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한다.
⑤ 개인의 경제 행위를 알면 사회의 경제를 알 수 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강의안을 작성하였다고 할 때, 내용이 더 추가된 것은? [2점]

< 보 기 >

강의 주제 : 복잡성 과학으로 풀어 본 현실 경제
1. 들어가는 말
 • 현실 경제를 과학으로 풀어 본 아서 교수의 이야기
2. 복잡성 과학에서 본 현실 경제
 ⓐ 비디오 시장을 VHS 방식이 점령한 요인
 ⓑ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성향
 ⓒ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변화
 ⓓ 복잡성 과학에서 본 현실 경제의 특징
 ⓔ 경제에 대한 환원주의적 관점 비판
3. 맺는 말
 • 앞으로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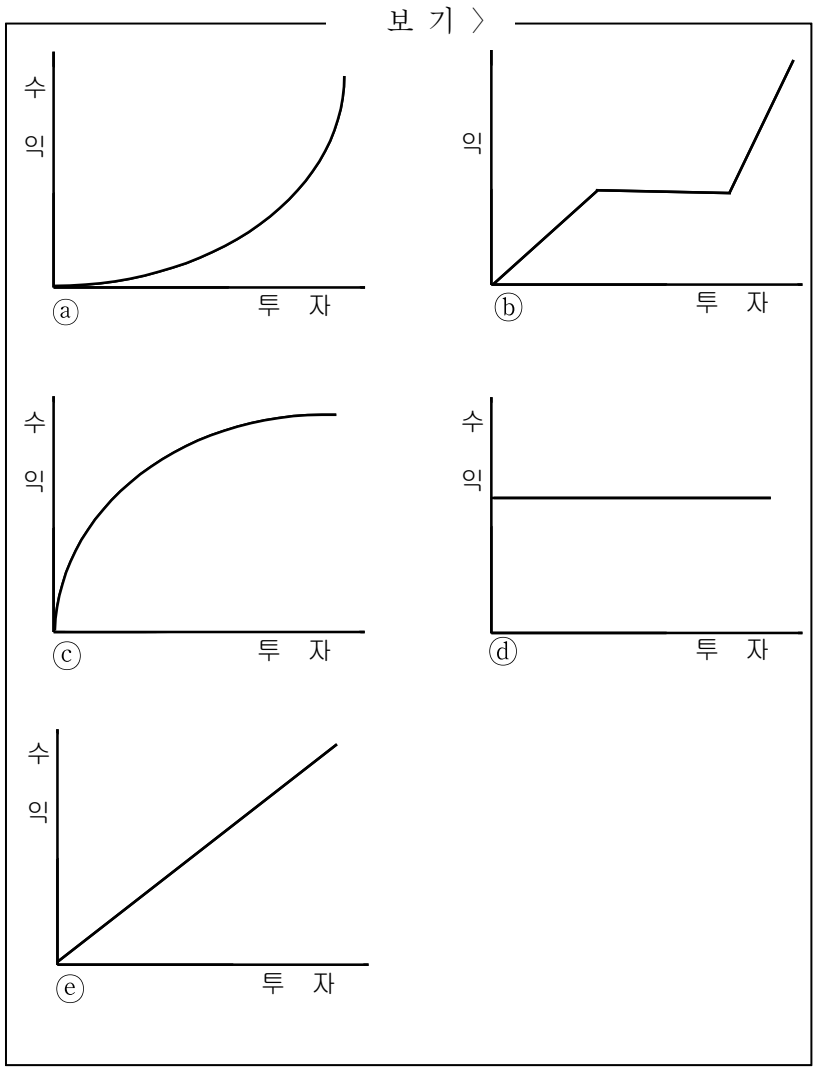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30.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탐구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복잡성 과학 이론의 특징과 적용 분야
②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독점 과정
③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 정보 사회 이후에 등장할 새로운 경제학 이론
⑤ 식량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확체감의 법칙

31. <보기>는 ㉠,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그래프이다.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점]

보 기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32. ㉢이 나타난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① 잡화만 팔던 편의점에서 택배와 전화 요금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고객이 증가하였다.
② 소규모 서점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서점이 들어서자 소비자들은 대규모 서점을 찾았다.
③ 생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들어서서 대규모 공업 단지가 형성되었다.
④ 한 통신업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사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던 시장 점유율을 역전시켰다.
⑤ 키보드 자판을 편리하게 개선한 새로운 키보드 제품이 나왔으나, 기존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키보드를 새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싱싱하게 자라는 안마당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방 앞에 있는 병든 해바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서재 앞마당은 석 자도 못 되는 넓이에다가, 6척이 넘는 벽돌담이 남쪽을 가리어, 꽃을 심어도 안 되고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곳인데, 5월 달에 안마당에서 화초를 솎아 버리다가 그 중 키도 잎사귀도 제일 큰 해바라기 한 그루를 아깝다고 아이들이 옮겨다 심은 것이다.

볕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담 밑에서 해바라기가 될 리 없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아이들이 하는 일이기에 내버려 두었더니, 예상한 대로 이놈은 발육이 시원치 않았다. 해 잘 드는 안마당 해바라기는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나서 밑둥 직경(直徑)은 벌써 한 치가 실하고 키는 내 키가 넘으며, 상수리에는 꽃봉오리를 달고 바람이 불면 쟁반같이 큰 잎사귀를 자랑스레 너울거리게끔 되었는데, 내 방 앞 해바라기는 옮겨 심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자라기는커녕 도리어 더 초라해만 지는 것이다. 줄거리는 언제까지나 새끼손가락 같고, 잎은 송편 크기만밖에 안 한다. 그럴 지경이면 키도 차라리 안 컸으면 좋겠는데, 키만은 나이 값을 해 약간 자랐으니 도리어 탈이다. 워낙 가느다란데 키만은 자가웃 가량이나 크고 보니 바람기가 없어도 제풀에 쓰러질 듯 [㉠] 하는 폼이 위태롭기만 하다.

환경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같은 종자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란 해바라기건만, 햇볕을 받고 못 받는 차이 때문에 안마당 해바라기와 내 방 앞 해바라기는 이렇게 아주 종자가 다른 것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만 것이다.

이 사실만 해도 사람의 감회를 자아내기에 족한데, 이 병든 해바라기한테는 드디어 한층 잔학한 시련이 닥쳐왔다. 저번,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던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이 발육부전(發育不全)의 해바라기는 무참하게도 담 밑 땅바닥에 넘어져 버린 것이었다. 보기 싫었다. 감정도 사고(思考)도 없는 식물이건만, 나에게는 그것이 생존 경쟁에 패배해 넘어진 인생의 패자(敗者) 같이 보였다. 눈물을 흘리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그런 운명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의 손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장 뽑아버리기도 애처롭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더니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꽃 필 희망은커녕 더 자랄 희망조차 없는 해바라기는 줄기와 잎이 흙에 묻힌 채, 그래도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물론 온몸을 쳐들 힘은 없기 때문에 맨 윗순만을 철사를 꼬부리듯 꼬부려 쳐드는 것이다. 햇빛 비치는 밝은 쪽을 향해 단 한 치라도 그곳으로 가까워지려고…….

생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해바라기에 무슨 목적이 있길래 그토록 좀더 살려고, 좀더 낫게 살려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애를 쓰는 것인가. 나는 이 병든 해바라기의 악착같이 살려는 의지가 무서워 지금은 선뜻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 유진오, 해바라기 -

(나)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매미들도 다 제 집 속으로 들어가고, 몇 마리 산새들만이 나즈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온 여름 동안 키만 자랐던 속새풀 더미가 갈대꽃 같은 솜꽃만을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 끝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새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밑을 훤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다.

- 한흑구, 보리 -

33.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필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몰인정한 인간 세태를 비판함
② 자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
③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깨닫게 함
④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태도를 경계함
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34. <보기>는 (가)를 읽고 쓴 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점]

①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환경은 변화하지 않는가
② 인간은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③ 인간의 환경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④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회적 환경은 똑같지 않은가
⑤ 인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가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대상을 인간의 삶의 모습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② 계절의 순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③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 현상과 대비시켜 대상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36. 대상에 대한 태도가 (나)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① 백설이 부서진 / 하늘 한 모서리 // 다홍으로 / 불이 붙는다. // 차가울사록 / 사모치는 정화(情火) // 그 뉘를 사모하기에 / 이 깊은 겨울에 애태워 피는가.
- 정훈, 동백 -

② 하늘에 깔아 논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 박남수, 새 -

③ 본래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 하여 /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 미진(微塵)도 가까이 않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 이병기, 난초 -

④ 조국을 언제 떠났노, /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鄕愁), / 너의 넋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 김동명, 파초 -

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 오랑캐꽃, /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울어 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

37. 문맥상,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흐늘흐늘　② 간들간들　③ 한들한들
④ 흔들흔들　⑤ 너울너울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화조화가는 서양화의 경우와 같이 자연과 꽃과 새가 가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빌려 새로이 예술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예술에 공통된 조화의 이치에 따라 꽃과 새를 그린다. 그리고 감상자는 자신이 ㉠지닌 한 폭의 화조화(花鳥畵)를 감상할 때 화조화가 갖는 예술미를 대자연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완상(玩賞)하며, 거기에서 자연의 도(道)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한 폭의 훌륭한 산수화를 방안에 걸어 놓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산수, 자연의 경지를 와유(臥遊)*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화조화에 등장하는 새와 꽃은 새와 꽃 자체라기보다 더욱 광범위한 배후의 자연을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이며, 화면의 꽃과 새는 자연 풍경의 집중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숙주가 그의 『화기(畵記)』에서 "산수 그림을 통해 자연의 참모습을 뽑아낸다."는 말도 자연의 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조화의 오묘한 이치를 말할 때 『시경』의 한 구절인 "하늘에서는 솔개가 자연스럽게 날고, 물 속에서는 고기가 뛰논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지만, 이 말은 자연계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하늘에 나는 새는 ⓐ인위가 개입되지 않은 스스로의 질성(質性)*에 따라 생을 구가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화의(畵意)를 ㉢지닌 것이 화조화이며, 따라서 화면의 새는 단순한 새이기 전에 대자연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니는 상징물로 파악된 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새와 함께 등장하는 화면의 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조화에 등장하고 있는 꽃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꽃나무를 그리는 의도가 그것의 생태를 객관적·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지 않고 새와 다른 개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동(動)의 속성을 ㉣지닌 새와 극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靜)의 상징물로서의 꽃을 그리는 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꽃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합리적 사고는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소재에 대한 관념과 예술 의욕은 화조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수화 등 모든 동양화에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전시가를 통하여서도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조화를 꽃과 새에서 찾고 있음을 본다. 자연 섭리의 극적인 　　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작가가 한 작품 속에 등장시키려는 꽃과 새의 종류 중에 극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서도 문학적 여운을 배가시킬 수 있는 특정한 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화조화의 꽃과 새는 서로 동과 정, 음과 양의 　　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은 시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 와유(臥遊) :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질성(質性) : 어떤 사물의 타고난 성질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① 화조도에는 자연의 섭리와 조화가 반영되어 있다.
② 화조도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상에 접근한다.
③ 화조도를 감상한다는 것은 자연 자체를 감상하는 것이다.
④ 화조도는 자연과 예술의 공통되는 이치를 그려낸 것이다.
⑤ 화조도는 자연의 참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리기 위한 수단이자 그 결과이다.

39. ㉠～㉤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40. ⓐ가 가장 잘 형상화된 작품은? [1점]

① 뒷 뫼히 뭉킨 구름 앞 들에 펴지거다
바람 불지 비 올지 눈이 올지 서리 올지
우리는 뜻 모르니 나무랄 줄 모르노라.

②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래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③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산(山) 절로 수(水)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④ 어리고 성근 가지 너를 믯지 아녓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터라.

⑤ 淸凉山(청량산) 六六峰(육륙봉)을 아는 이 나와 白鷗(백구)
白鷗(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손 桃花(도화)로다.
桃花(도화)야 떠나지 마라 魚舟子(어주자) 알까 하노라.

41.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점]

① 대비와 조화　② 대칭과 차이
③ 대응과 통일　④ 대조와 비교
⑤ 대립과 대등

42. 윗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화조도'를 비평한 서적들을 찾아 읽어 보았다.
② '화조도'를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을 방문해 보았다.
③ '화조도'를 그리는 기법의 특성을 더 조사해 보았다.
④ 중국의 '화조도'와 우리 나라의 '화조도'를 비교해 보았다.
⑤ 서양화에서는 꽃과 새를 어떤 관점으로 화폭에 담는지 알아보았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新蒭獨酒如湩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耞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헤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擧趾齊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叟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나)

논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메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섶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 가서 점심 도슭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닢담배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 작자 미상 -

(다)

한기태심(旱旣太甚)*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놉흔 논에 잠깐 갠 널비에
도상무원수(道上無源水)를 반쯤만 대혀 두고,
㉠<u>소 한 젹 주마</u> 하고 엄섬이 하는 말삼
친절(親切)하다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에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침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u>어와 긔 뉘신고</u> 염치(廉恥) 없산 내옵노라.
㉢<u>초경(初更)도 거읜데 긔 엇지 와 겨신고</u>.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는
소 없산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왔삽노라.
㉣<u>공으로나 갑시나 주엄즉도 하지마는</u>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져 사람이
목 불근 수기 치(雉)*를 옥지읍(玉脂泣)게* 구워 내고
갓 이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갑흘넌고.
㉤<u>내일(來日)로 주마</u>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셜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헌 먼덕 숙여 스고 축 업슨 짚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에 개 지즐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 내 한(恨)을 도우나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한기태심(旱旣太甚) : 가뭄이 몹시 심함
* 서주(西疇) : 서쪽에 있는 논 두둑
* 수기 치(雉) : 수꿩
* 옥지읍(玉脂泣)게 :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4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2점]

① (가), (다)는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 (다)는 (가)에 비해 계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④ (가), (나), (다) 모두 구체적인 생활 현실을 소재로 삼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는 (가)의 작자가 지은 작품이다. <보기>와 (가)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棉布新治雪樣鮮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黃頭來博吏房錢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漏田督稅如星火
삼월 중순 세곡선(稅穀船)이 서울로 三月中旬道發船
떠난다고.

- 정약용, 탐진촌요(耽津村謠) -

① 작가는 농촌 현실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② 두 작품 모두 관리로서 백성의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어.
③ 두 작품에서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어.
④ 방법은 다르지만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하는 의도는 같은 것 같아.
⑤ 작가는 직접 체험한 사실과 상상한 세계를 각각 다르게 형상화하고 있어.

45.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극한적 상황을 가정하여 나열하고 있다.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하고 있다.
③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시어를 반복하여 고조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6. ㉠～㉤ 중, 말하는 대상이 <u>다른</u>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명한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철학을 '관념들의 모험'이라고 하였다. 실로 그렇다. 그러나 어떠한 모험도 위험이 뒤따르며 철학의 모험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는 철학의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할 때에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을 지적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적은 지식은 위험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커다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적은 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커다란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원자 에너지의 파괴적인 위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원자의 비밀을 ㉠꿰뚫어 보려고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원자에 대한 지식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와 같이 증대하는 지식이 새로운 난점들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서양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지식의 획득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굴의 비유'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만 보도록 된 곳에 앉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등 뒤로는 불이 타오르고, 그 불로 인해 모든 사물은 동굴의 벽에 그림자로 나타날 뿐이다. 혹 동굴 밖의 ㉢환한 세상으로 나온 이가 있다면, 자신이 그 동안 기만과 구속의 흐리멍덩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동굴로 돌아가 사람들을 계몽하고자 한다면, 그는 오히려 무지의 장막에 휩싸인 자들에게 불신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깨달음에 가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입문자들은 실제로 지적(知的)으로 도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신의 모험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한 셈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계획된 새로운 내용과 높은 평가 기준이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모르고 있지만, 그들 자신은 자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든다.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인식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사고와 행위 방식을 혼란시킬지도 모르는 모험이며, 학습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하고도 중대한 위험이다. 한 번 문이 열리면 다시 그 문을 닫기란 매우 어렵다. 일반 사람들은 더 큰 방, 더 넓은 인생 공간에 나아가면 대부분 두려움을 느끼며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몇몇의 뛰어난 입문자들은 사활(死活)을 걸어야 하는 도전에 맞서, 위험을 감싸 안으며 흥미로운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성적 도구들을 예리하게 간다.

철학의 모험은 자주 거칠고 무한한 혼돈의 ⓐ바다에 표류하는 작은 ⓑ뗏목에 비유된다. 어떤 철학적 ⓒ조난자들은 뗏목과 파도와 날씨 등의 직접적인 환경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조난자들은 ⓓ조류의 속도나 현재의 풍향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섬을 얼핏 보고 믿음이라는 항구를 향해 힘차게 배를 저어 나아갈 것이다. 또 다른 조난자들은 막막함과 절망의 중심에서 완전히 좌초해 버릴 수도 있다. 뗏목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보증인이 없다. 그러나 뗏목은 늘 거기에 있으며, 이미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4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2점]
①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③ 상반된 이론을 대비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⑤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48.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2점]
① 관찰(觀察)하려고 ② 주시(注視)하려고
③ 예측(豫測)하려고 ④ 규명(糾明)하려고
⑤ 추출(抽出)하려고

49. 글쓴이가 ㉡을 인용한 이유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2점]
①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② 인간의 호기심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③ 인간이 지켜야 할 공동의 규범은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④ 무모한 동기에 의한 행위는 그 결과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50. ⓐ~ⓔ 중, ㉢과 의미가 가까운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1. 윗글을 바탕으로 철학 동아리를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 이상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좌절의 늪입니까?
> 지적 갈증에 허덕이는 자,
> 진리를 얻고자 갈망하는 자,
> 저희 '가리사니' 철학 동아리로 오십시오.
> 우리 동아리에 오면
> ( )으로
> 진리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① 학문과 실질을 숭상하는 지혜로움
② 위험과 절망이 따르는 지적 대탐험
③ 상식과 편견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
④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려는 탐구심
⑤ 불신과 박해를 벗어나는 참된 호기심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잘못된 외래어 수용 태도는 우리말에 두 가지 방식으로 큰 손상을 주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이미 있던 우리말 어휘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 어휘와 계층관계를 형성하여 더 품위 있고 고상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江)-가람', '산(山)-뫼', '문(門)-지게', '백(百)-온', '성(城)-잣' 등은 앞쪽의 예이고, '치아(齒牙)-이(빨)', '밀크-우유-소젖' 등은 뒤쪽의 예이다. 이런 식의 외래어 수용 태도 때문에, 고유어휘는 꼼짝 못하고 죽어가거나 비천한 지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나라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의사 소통력의 확보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겨우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다른 나랏말을 가르치는 학원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부터 말을 배우는 예도 가까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말보다 외국말을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예 모국어가 바뀌는 세상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온 겨레가 다른 나라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오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말을 하게 되고 특히 어릴 적부터 다른 나라말의 소리와 어휘 문법 구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말에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일부의 사람들만이 ㉠다른 나라의 어법을 흉내낸 표현이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가올 '다른 나라말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와서 외래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잊혀져 가던 우리 옛말을 되살리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미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와 실제 말글살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술 용어를 포함한 여러 전문 분야의 용어를 고유어 식으로 짓거나 바꾸어 가는 경향은 우리말의 세계를 알차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겨레로 하여금 문화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일상의 말글살이에서 쉽게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를 많이 찾고 만들어 쓰는 등의 일은 흔히 국어 순화 또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일은 일차적으로 새로 필요한 말들을 우리말로 짓고, 나아가 이미 우리말 어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겨레의 입에 익숙해진 상당수 한자어나 새 물건과 함께 들어온 서양말들은 쉽게 제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일본말의 찌꺼기들도 떼어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절실하다는 데에 온 겨레가 뜻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문학가와 학자 그리고 언론 매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2. 윗글의 집필 의도로 알맞은 것은? [2점]

① 우리말 정책의 변화 과정을 밝혀 보겠다.
②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겠다.
③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
④ 규범에 맞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
⑤ 외래어 표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53.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2점]

①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② 나는 오늘도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한다.
③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갯벌 보존에 대해 밤새 토론을 가지게 되었다.
⑤ 저 산 너머에는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겠다.

54.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우리는 매주 <u>써클</u> 활동을 한다. → 동아리
② <u>노견(路肩)</u>에는 주차할 수 없다. → 갓길
③ 백화점에서 <u>바겐 세일</u>을 한다. → 할인 판매
④ 이번 <u>신입생(新入生)</u>은 특히 활달하다. → 새내기
⑤ <u>인터체인지</u> 부근에서 차량들이 지체되고 있다. → 나들목

55.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견해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자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보 기 〉

한자를 괄호에 쓰는 병용(竝用) 방식은 글쓰는 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글을 쓰다가 낯선 외래어를 쓸 때 독자가 어려워할까 괄호에 원어(原語)를 밝혀 쓰듯이 한자어가 많은 국어에서 한자를 괄호에 병용(竝用)함은 의사소통을 위해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써야 한다.

① 한자를 병기하려면 두 개의 글자판 인쇄 매체가 필요하므로 한자 병용은 비효율적이다.
②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쓰는 데는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③ 일부 지식인 계층이나 한자를 배운 일부 세대만이 이해하는 한자를 굳이 병기할 필요가 없다.
④ 컴퓨터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운 한자를 쓰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⑤ 외래어 순화 작업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자를 병용하여 쓰게 되면 우리말의 오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동설한에 장끼가 아내 까투리와 함께 자식들을 거느리고 먹을 것을 찾아 들판을 헤매다가 콩 한 알을 발견한다. 굶주린 장끼가 그 콩을 먹으려 하나, 까토리는 먹지 말라고 만류한다.

까토리 하는 말이,

"그 콩 먹고 잘 된단 말은 내 먼저 말하오리다. 잔디 찰방(察訪) 수망(首望)으로 황천 부사(黃泉府使) 제수(除授)하여 청산을 아주 이별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고서(古書)를 볼 양이면 고집불통(固執不通) 과하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 몇몇인고. 천고(千古) 진시황(秦始皇)의 몹쓸 고집 부소(扶蘇, 진시황의 아들)의 말듣지 않고 민심소동(民心騷動) 사십 년에 이세(二世) 때에 나라 잃고, 초 패왕(楚類王, 항우)의 어리석은 고집 범증(范增)의 말 듣지 않다가 팔천 제자(八千弟子) 다 죽이고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하여 자문이사(自刎而死)하여 있고, 굴삼려(屈三閭)의 옳은 말도 고집 불청(不聽)하다가 진무관(秦武關)에 굳이 갇혀 가련 공산(可憐空山) 죽은 넋 되어 강상에 우는 새 어복 충혼(漁復忠魂) 부끄럽다. 그대 고집 과하다가 신명(身命) 잘못되오리다."

장끼란 놈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가. 고서를 볼작시면 콩 태(太)자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太古)적 천황씨(天皇氏)는 일만 팔천 세를 살아 있고,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는 풍성(風聲)이 상승(相承)하여 십오 대를 전해 있고, 한 태조(漢太祖, 유방) 당 태종(唐太宗)은 풍진 세계(風塵世界) 창업 지주(創業之主) 되었으니 오곡백곡(五穀百穀) 잡곡(雜穀) 중에 콩 태자가 제일이라. 궁팔십(窮八十) 강태공(姜太公)은 달팔십(達八十) 살아 있고, 시중 천자(詩中天子) 이태백(李太白)은 기경상천(騎鯨上天)하여 있고, 북방(北方)의 태을성(太乙星)은 별 중에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上天)하야 태을 선관(太乙仙官) 되오리라."

까토리 홀로 경황(驚惶)하여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구벅구벅 고개 조아 조츰조츰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드립더 꽉 찍으니, 두 고패 둥글어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博浪沙中)에 저격시황(狙擊始皇)하다가 버금 수레 맞히는 듯 와지끈 뚝딱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까토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을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亡身)하네."

까토리 거동 볼작시면, 상하 평전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놓고 당글당글 궁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 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도 불상타 의논하며 조문(弔問) 애곡(哀哭)하니 가련 공산 낙목천(落木天)에 울음소리뿐이로다.

까토리 슬픈 중에 하는 말이,

"공산 야월(空山夜月) 두견성(杜鵑聲)은 슬픈 회포 더욱 섧다. 통감(通鑑)에 이르기를, 양약(良藥)이 고구(苦口)나 이어병(利於病)이요, 충언(忠言)이 역이(逆耳)나 이어행(利於行)이라 하였으니 자네도 내 말 들었으면 저런 (가) 변 당할손가,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부부 좋은 금슬(琴瑟) 누구더러 말할소냐, 슬피 서서 통곡하니 눈물은 못[沼] 되고, 한숨은 풍우(風雨)된다.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이 할고."

장끼 거동 볼작시면 차위* 밑에 엎드려서

"예라 이년 요란하다. 후환(後患)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리, 선(先) 미련 후 실기(後失期)라 죽는 놈이 탈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를 맥(脈)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 보소."

까토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脾胃脈)은 끊어지고, 간맥(肝脈)은 서늘하고, 태충맥(太衝脈)은 걷어가고, 명맥(命脈)은 끊겨 가네. 애고 이게 웬일이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 중 략 >

㉠장끼란 놈 기를 쓴다. 아래 고패 뻗디디고, 위 고패 당기면서 버럭버럭 기를 쓰나 살 길이 전혀 없고 털만 쏙쏙 다 빠지네.

이 때에 차위 임자 탁(卓) 첨지는 망보다가 만선두리 서피(鼠皮) 휘양 우그려 쓰고, 지팡막대 거둬 짚고 허위허위 달려들어 장끼를 빼어들고 희희낙낙(喜喜樂樂) 춤을 추며,

"지화자 좋을시구 안 남산(南山) 벽계수(碧溪水)에 물먹으러 네 왔더냐? 밖 남산 작작 도화(約約桃花) 화류차(花柳次)로 네 왔더냐. 탐식몰신(貪食沒身) 모르고서 식욕이 과하기로 콩 하나 먹으려다가 녹수청산(綠水靑山) 놀던 너를 내 손으로 잡았구나. 산신(山神)께 치성하여 네 구족(九族)을 다 잡으리라."

장끼의 빗문 혀를 빼어내어 바위 위에 얹어놓고, 합장(合掌)하여 비는 말이,

"아까 놓은 저 차위에 까토리마저 치이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꾸벅꾸벅 절하고, 탁 첨지 내려간다.

* 차위 : 꿩 잡는 틀

- 작자 미상, 장끼전 -

5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일정한 단위의 어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을 직접 조롱하고 있다.
③ 동물을 인격화하여 인간의 삶을 우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등장 인물이 동일한 한자음을 의도적으로 거듭 사용하고 있다.
⑤ 등장 인물이 고사(故事)를 끌어 들여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57. 윗글을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장끼의 가족이 먹이를 찾아 눈 쌓인 들판을 헤매는 장면
② 까투리가 장끼에게 콩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는 장면
③ 덫에 걸린 장끼 앞에서 가족이 통곡하는 장면
④ 까투리가 장끼의 맥을 짚으며 한탄하는 장면
⑤ 장끼가 까투리에게 기대면서 위로하는 장면

58. (가)와 가장 유사한 심정이 드러나는 것은? [2점]
① 저 임아,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② 비 개인 긴 둑에 풀빛이 진한데,
남포에 임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③ 서울 밝은 달밤에
밤 늦도록 놀며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④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멀리 비추어주십시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렵니다.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내 가는 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서 얕게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하는 내 마음을 알아 줄 이는 저 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59.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은? [1점]
① 독 안에 든 쥐 꼴이군.
② 혹 떼러 갔다 혹 붙인 격이군.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
④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이군.
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군.

60. 윗글의 '장끼'와 <보기>의 '다람쥐'를 통해 작가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2점]

〈 보 기 〉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를 갚기를 힘쓰고 거칠은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라 반드시 후일에 낭군을 위하여 사례를 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피어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호위인사(好爲人師)로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은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날더러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녀의 정이고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이거늘 부귀를 따라 딴 마음을 둘진대, 갈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①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비인간적인 사회 현실
② 실리보다 명분을 추구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
③ 봉건적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④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세상 인심
⑤ 관리들의 수탈로 서민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빠지는 사회상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